

해와 달이 된 오누이



1. 우주인 예수를 만나다.
2. 21세기와 새복음
3. 가까워진 천국
4. 신과 우주와 인간
5. 해와 달이 된 오누이
6. 청소년과 지구의 미래
7. 증산과 아쉬타 사령관
8. 히말라야의 예수와 붓다
9. 이상한 나라의 지구
10. 특별한 시대를 살며
11. 밀빠진 그릇이었나

김병숙
저
음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출간일 2018년 6월 30일

지은이 김병숙

발행인 김병숙

출판사 무화과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1-13

휴먼시아 동화마을 105-206

등록일 2018년 4월 3일 (등록번호:829-95-00580)

전 화 031-235-2547

E-Mail jesusufo2@gmail.com

cafe.naver.com/jesusufo5

blog.naver.com/jesusufo5

homepage jesu-ufo.com

© 무화과 2014년 5월

ISBN:979-11-87209-45-4



동쪽을 보라.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파파쏘스(근원의 아버지)

아버이 신은 지구를 마음으로부터 존중하는 바, 감정의 차원으로 들어와서 신성한 사랑을 표현하는 영혼은 천만배로 성장할 것이다.1)...미카엘 대천사

신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셔서 큰 덕과 슬기와 힘을 가지고 하늘과 끝없는 세계와 많고많은 사물을 만드셨으니 티끌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밝고도 영험하시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존재시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시니, 착한 성품으로 시작하라. 그러면 너희 머리 끝에 내리시리라...환 단고기

1) 은하문명 간 ‘미카엘 대천사의 메시지와 예언’에서 인용.



< 시작하기 전에 >

먼저 정신세계사에서 발간한 ‘한단고기’와 ‘실증 한단고기’ 두권의 책이 모든 인용문들의 출처임을 밝힘과 동시에 이일봉 임승국 두분의 저자에게 감사드리며 글을 시작합니다.

환단고기에 대한 위서 논란이 있는데, 모든 고대사의 신화적 측면들은 고대인들의 상상물이 아니라 지구를 내방했고, 눌러 살기도 했던 우주인들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간단히 풀리는 문제다. 다시 말해서 환인, 환웅, 단군님들은 저 우주에 고향을 둔 내방객이요 초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존재들이라고 한 것이다. 또 초능력을 지닌 우주인들이었기 때문에 기상(氣象)을 콘트롤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風伯), 구름과 비를 관장했던 운사(雲師), 우사(雨師) 등의 관직명이 단군신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사용된 단어들 이 현대어와 같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과학, 철학, 우주, 산업 같은 한자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뿌리가 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科자는 벼화(禾)에 말두(斗)를 합한 글자이니 농사를 지어 사고 팔 때, 즉 계산능력이 생겼을 때부터 사용된 글자였을 것이다. 철인이라는 단어는 중국의 고문서에도 나오는 단어이고, 우주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장자의 ‘달팽이’ 우화 중에서 이미 우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중국의 천자문 天地玄黃宇宙...의 玄黃宇宙를 풀이하면 玄은 물질세계를, 黃은 빛의 세계를 뜻한다. 물질은 어두움이요 빛은 ‘중심태양’이기 때문에 黃자를 쓴 것이다. 黃은 오행설에서 중심을 뜻하는 글자다.

天地玄黃宇宙...중에서 宇의 于는 행한다, 움직인다는 뜻의 글자이고 宙의 由는 말미암다, 비롯되었다는 뜻의 글자다. 宇는 별들의 궤도운동을, 宙는

만물이 비롯되고 시작된 근원으로서의 우주를 뜻하는 것이다. ‘집우’ ‘집주’라고 풀이한 것은 온 우주를 하나의 집으로 간주한 것이다.

산업이라는 단어에 쓰인 業이라는 글자의 내력도 환단고기에서 찾을 수 있다.

아기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여 삼신(三神)이라 하고(삼신할머니) 벼 익은 것을 축하하여 업(業)이라 하였다. 산을 군생통력(群生通力)의 장소라 하고 업(業)을 생산작업의 신이라 한다. 때문에 또한 업주가리(業主嘉利)라고도 한다....¹⁾

업주가리는 당산나무와 함께 민족의 풍습으로 최근까지 전해왔다. 스스로 농사를 지어 삶을 책임지니(業主) 이롭고 자랑스럽다(嘉利)는 뜻이다. 원과 지름의 관계에 대해서 단군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내용도 있다.

왕검씨(단군왕검)는 지름이 둘레를 한 바퀴 도는 길이의 기(機)를 받아 애오라지 왕의 도를 써서 천하를 다스리시니.....(王儉氏承徑一周三徑一匝四之機....)

徑은 지름길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며 匝은 周와 같은 뜻으로 한 바퀴 돈다는 뜻의 글자다. 그래서 위의 한문 문구는 원둘레와 원지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다. 계연수라는 사람이 신식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원지름과 원둘레의 관계를 알고 있었을까? 그렇다면 三點一四라 했지 위와 같은 표현법을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위의 문구는 고기(古記)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놓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책력을 만드사 365일 5시간 48분 46초를 일년으로 하니 이것이 바로 삼신 일체의 웃어른이 남긴 법이다.

현대과학이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겠지만 환웅님과 단군들은 현대의 우리보다 오히려 과학지식에 앞섰다고 보아야 한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즉 우주인들의 가까운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1) 이하 모두 정신세계사 간 ‘환단고기’에서 인용.

환단고기라는 한 권의 책이 엮어진 것은 그 배경에 수많은 고기(古記)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고기들의 이름이 조선왕조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고조선비사, 대변설, 조대기(고조선역대기), 지공기, 표훈삼성밀기, 삼성비기, 삼성기.....도중기, 동천록, 통천록, 지화록 등의 문서를 사사로운 곳에 두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이를 보관하고 있는 자는 허락하에 바쳐 올리도록 널리 공사가(公私家) 및 사찰에 알리도록 하라.....조선왕조실록 세조편²⁾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단군서들을 부정한다면 족보에 실려있는 자신의 조상을 부정한다는 말과 같지 않은가?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중국의 산해경이라는 신화집과 사기라는 역사서에서 일치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위서라고 치부해선 안된다. 호모씨피엔스의 조상이 우주로부터의 DNA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이 공표되고, 많은 한자 단어들에 생각보다 역사가 깊다는 언어학적 발견이 뒤따른다면 '위서론'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환단고기를 '한단고기'라는 이름으로 번역해낸 임승국 선생의 말에 의하면, 소위 일본의 식민사학자 이마니시가 말하기를, **고려시대에 고조선기와 유사한 구전과 고기(古記)가 많았다.**,고 하면서 당시에 서운관에 소장되어 있었던 다음과 같은 문서들의 이름을 열거했다 한다. **조대기, 주남일사기, 신비집, 고조선비사, 대변설, 지공기, 표훈삼성밀기, 삼성기, 도중기, 지이성묘하사랑훈, 수찬기소 100여권, 동천록, 마슬록, 통부록, 호중록, 지화록, 도선한도참기** 등이다. 고기(古記), 밀기(密記)라고 불린 단군서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일본 학자가 실토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은 우리보다 먼저 환단고기를 번역해서 수백권을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기증했다고 임승국 선생은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 역사학자들이 무시하고 있는 우리의 고대사를 일본인의 증언을 통해 알아야 한단 말인가?!.....

2) 정신세계사 간 이일봉 역 '실증 환단고기'에서 인용.



< 서문 >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옛날 이야기’가 있다. 하늘에 올라가 해와 달이 되었다는 두 남매에 관한 이야기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던 두 남매는 어느날 해가 다 넘어가도록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떡 함지박을 머리에 이고 떡을 팔러 나가곤 했는데, 해가 질 무렵이면 돌아오시곤 했으나 그날은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이튿날 어머니가 돌아오긴 했으나 그 모양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남매는 방문을 걸어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호랑이가 남매 엄마의 옷을 걸치고는 있었지만 털이 많은 얼굴과 손발이 틀림없는 호랑이였기 때문이다. 자초지종은 이러했다 한다. 엄마가 떡을 팔기 위해 고갯길을 넘어갈 때에 호랑이가 나타나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말했다 한다. 그래서 하나를 주었지만 고개 하나를 넘고 나니 또 나타나서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함지박의 떡을 다 빼앗긴 다음에는 마침내 엄마마저 잡아먹히고, 남매까지 잡아먹으려 집을 찾아온 것이었다.

오빠는 엄마 옷을 걸친 호랑이가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방문을 안 열어주었지만, 호랑이의 힘을 당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뒷문으로 도망쳐 감나무로 피했다고 한다. 뒤따라온 호랑이도 감나무에 오르려 했지만 실패하고 남매에게 물었다고 한다. ‘너희들 어떻게 그 나무에 올라갔니?’ 똑똑한 오빠가 이렇게 대답했다 한다. ‘참기름을 나무둥치에 바르고 올라왔지.’

똑똑하지 못한 호랑이가 그대로 했지만 미끄러져 엉덩방아만 찌었다고 한다. 화가 난 호랑이가 다시 문자 겁이 많은 누이동생이 사실대로 말했다고 한다.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올라왔지’라고.

마침내 호랑이가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올라오자 남매가 하느님께 기도했고, 하늘에서는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와 남매를 데려갔다고 한다. 호랑이

도 밧줄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썩은 밧줄이 내려와 호랑이는 또 다시 엉덩방아만 찢었는데, 그 떨어진 곳이 하필 수수밭이어서 수수깥에 찢린 호랑이의 피 때문에 수수깥이 빨간 색을 띄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호랑이는 단군 설화에서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이다. 곰은 참을성이 있어 인간 여자로 변신한 후 알타이족의 조상이 되었지만 호랑이는 참을성이 없어 인간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 호랑이는 호전성을 의미하고 패권주의를 상징하고 있을 것이다.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서양은 동적(動的)이고 동양은 정적(靜的)인 문명을 낳았다고 한다. 또 서양은 합리주의적이고 동양은 신비주의적인 철학적 성향이 있다고도 한다. 동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기질이 과학적 발전에 앞섰고 정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성향이 철학과 사상에 있어서 앞서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시대는 합리주의 보다는 신비주의가, 과학적 호전성 보다는 철학적 온건주의가 더 요구되는 시대다. 지금까지는 우주 사회로부터 격리된 행성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우주의 시민이 되어 살기 위한 우주적 철학과 사상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적 호전성은 우주의 평화를 깨는 ‘문제아적’ 행성이라는 낙인만 찍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 태양계가 두 개의 태양과 두 개의 달을 가지게 된다는 미카엘 대천사의 메시지가 있었다. 지구의 과학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지구 태양계 반대편에 있는 쌍둥이 태양계와 합쳐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옛이야기는 마치 위와 같은 과학지식을 미리 알았던 우리 조상님들이 예언처럼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책의 제목으로 삼았다.

2016년 10월 14일

저자 김 병숙

(사용된 인용문과 조각그림의 저작권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 후에 보상이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차례 >

1. 개략적 단군역사...../13
2. 12환인과 수메르 신화
3. 민족적 풍습이 증거한다
4. 환단고기와 민족적 정체성
5. 중국 산해경과 환단고기...../36
6. 중국 사기와 환단고기
7. 카스피해인가 바이칼호인가
8. 단군조선의 역사-1
9. 단군조선의 역사-2
10. 단군조선의 역사-3...../74
11. 단군조선의 역사-4
12. 단군조선의 역사-5
13. 졸본은 하얼빈에 있었다
14. 아사달은 하얼빈의 옛이름...../107
15. 평양은 압록강 이북에도 있었다
16. 기자와 기자조선
17. 중국 동이전과 우리 고대사
18. 중국 역사와 동이족...../138
19. 낙서와 하도
20. 단군철학의 과학성
21. 오행설의 기원은 신시시대
22. 판과 환은 동일한 신이었나...../176
23. 환인, 인드라, 제석천
24. 신라와 제사장 국가
25. 1만명의 순교자들...../191
26. 예녹서의 백색의 소, 그리고 증산
27. 만파식적을 만들 수는 없을까
28. 자아는 인간의 주성
29. 황소자리 중심별 알데바란...../206
30. '추락'이란 어떤 것이었나
31. 동양정신과 인본주의...../214
32. 동양정신과 온고지신
33. 임마누엘 교수의 극찬
34. 군자와 선비정신
35. 불사조 피닉스와 봉황새...../227
36. 우주의 원앙새들
37.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38. 앙크 십자가와 민족적 사명
39. 디오니소스와 미다스의 짐마차
40. 목련꽃과 수선화...../249
41. 민족종교에 대한 거부감과...
42. 4개의 눈을 가졌던 문자의 아버지
43. 몽고에 관한 민족주의적 오해
44.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 신화.../268
45. 공룡의 돌아옴과 마젤란 은하
46. 인류학적 '효'를 배워야 할 필요성
47. 세계적 평화무드의 시작이기를...
48. 나노과학과 영생의 문제...../281
49. 추락과 순교자의 길
50. 황소자리와 플레이데스
51. 모퉁이돌과 돌아온 탕자, 빛의 일꾼
52. 호모크리스토스의 약속...../293
53. 그리스도 자아와 참자아
54. 에라 행성의 외교적 성공사례
55. 은하적 진화와 지구적 진화
56. 하나됨의 논리...../306
57. 스위치가 작동되기를 기다리며
58.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

- 59. 상징물과 지혜의 시대...../316
- 60. 화룡점정의 시대감각
- 61. 다음 생 그리고 환생에 관하여
- 62. 총정리의 장
- 63. 자유의지와 자유선택...../329
- 64. 동쪽에서 떠오를 태양
- 65. 함께 기뻐하기 위함
- 66. 그날이 오면
- 67. 난생설화와 민족적 사명...../348
- 68. 여성성의 에너지가 필요한 지구
- 69.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 70. 민족적 사명과 어린아이
- 71. 유교와 권위주의...../360
- 72. 왜 한국인가?
- 73. '태양의 후예'인 여러분
- 74. 요한계시록과 생명의 책
- 75. 준비되어 있으세요...../375
- 76. 북한과 남한, 그리고 21세기 지구
- 77. 동쪽을 보라.
- 78. 서양과 만나야 할 동양
- 79. 피닉스, 지구 여성들의 조상...388
- 80. 끝맺음의 글



< 1 > 개략적 단군역사

우리는 ‘단군신화’라는 단어에 더 익숙하지만, 신화가 아니라 역사였다는 사실을 환단고기라는 문서가 충분히 증거하고 있다. 그 책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수많은 고기(古記)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고기들의 이름이 조선 왕조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고기들 중 ‘삼성기’라는 문서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옛 글에서 말한다. 인류의 조상을 나반이라 한다. 처음 아만과 서로 만난 곳을 ‘아이사타’ 혹은 ‘사타려아’라고 하는데, 꿈에 천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스스로 혼례를 이루었으니, 9환(桓)의 무리는 모두가 그의 후손이다...파나류산 밑에 환님(桓任)의 나라가 있으니 천해(天海) 동쪽의 땅이다. ‘파나류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그 땅이 넓어 남북이 5만리요 동서가 2만여리니, 통털어 말하면 환국이요 갈라서 말하면 비리국, 양운국...우루국...수밀이국이니 합해서 12국이다. 천해는 지금 북해라 한다. 7세에 전하여 3301년, 혹은 63,182년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 알 수 없다.¹⁾

카스피해 북쪽연안인 현재의 아스트라잔 지역에서 출발한 알타이족은 인구가 불어나면서 중앙아시아로 내려와 12환국의 시대가 열렸다고 한다. 천해의 동쪽 남북이 5만리요 동서가 2만리라는 것은 광대



1) 이하 모두 정신세계사 간 임승국 역,편저 ‘한단고기’에서 인용.

한 중앙아시아를 뜻하는 것이다. 12환인님들이 다스린 12환국이 있었다고 하고 ‘감군(監群) 환인님’이라는 명칭은 기독교 비경전 ‘에녹서’에서 말하는 ‘감시의 천사’다. 뉴에이지 문서 ‘유랜시아서’에서는 ‘12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다.



지리부도를 보면 파미르고원(파나류)과 알타이산맥이 있고, 중국의 초고대 지리서이자 신화서인 산해경이라는 문서에서는 천산에 제강이라는 신이 살았다고 한다. 산해경은 문자를 사용하기 전에 그림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인데, 중국인들이 먼 서쪽 천산에 살고 있다고 믿었던 제강(帝江)이라는 신은 몸에서 빛이 나고 날개가 달렸지만 얼굴은 그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체성을 알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환단고기에서는 환인님이 천산에 사시면서 몸에 병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환인님의 나라는 3301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조대기’라는 고기(古記)에 기록되어 있다 한다. 그 다음 환인님의 서자였다는 환웅님이 동쪽으로 이주해서 삼위/태백 지역에서 신시개천한 것이 단군신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다.

환국(桓國)의 말기에 안파견(환인)이 밑으로 삼위(三危)와 태백을 내려다보시며 "모두 가히 흥익인간할 곳이로다" 하시며 누구를 내려보낼까 하니 서자부(庶子部)의 환웅이 흥익인간으로 세상을 바꿀 뜻이 있다 하며 그를 태백산에 내려보내자고 추대하여²⁾....(삼성기)

삼위(三危)는 현재의 돈황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이었음이 산해경이라는 중국의 신화집에 나타나 있다.

....서쪽으로 220리를 가면 삼위산(三危山)이 있다.(지금 돈황군에 있다. 서경(書經)에 '삼묘를 삼위로 내몰았다'는 말이 있는데, 이 산을 말한다.)³⁾

한반도의 백두산이 아니라 중국 섬서성의 태백산이라는 증거는 그 외에도 많이 있다. 천해(天海), 금악(金岳), 삼위, 태백은 본래 9환(桓)에 속한 것이다,는 문구도 있는데 금악은 서쪽 산이라는 뜻이니 중앙아시아→금악→삼위(돈황)→태백으로 동진한 경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2) 이하 모두 정신세계사 간 임승국 역,편저 ‘환단고기’에서 인용.

3) 이하 모두 육문사 간 박일봉 저 ‘산해경’에서 인용.

현재의 중국 섬서성에 있는 태백산에서 내려와 신시(神市)를 건설하고 그 중심에 신단수(神檀樹)라는 박달나무를 심고 치세의 중심지로 삼았다고 한다. 돌로 신전과 신상을 새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를 신성시 했던 것이다. 그 풍습이 우리나라에서는 ‘당산나무’ 숭배로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태백산에서 내려와 신시를 건설한 곳은 중국 최고(古)의 도시인 장안(서안)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곳에서 발굴된 고대문자의 파편들 속에는 신시시대의 가림토 문자를 닮은 것들도 있다. 장안은 태백산에서 가장 가까운 문명의 발상지였고, 중국의 최고 조상들인 3황 5제도 그곳 장안(곡구) 일대를 고향으로 가지고 있었음이 사기라는 역사서에서도 말해지고 있다. 3황 5제가 모두 동이족이었던 것은 물론이다. 한(漢)족은 한참 후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15명의 환웅들 중 3명의 이름이 사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환단고기에서 9환 64족이라고 말하는 것을 사기에서는 9족이 있었다고 말한다.



환웅님이 세운 신시 배달국은 15대에 걸쳐 이어졌으며 14대 환웅인 치우천왕 때에 현재의 산둥반도인 청구로 이주해서 청구국을 세웠다고 한다. 중국의 고대 지리서이자 신화서인 산해경에서는 그곳 청구 지역에 청구국과 군자국이 있었다고 말한다. 14대 환웅 치우천왕 시대에는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해서 무기 뿐 아니라 갑옷제작 기술이 뛰어나 치우천왕의 투구는 철과 구리로 제작되었고, 중국의 황제와 대대적인 전쟁을 펼쳤는데, 중국 사기에서는 그 전쟁을 ‘탁록의 전투’라고 기록하고 있다.

14대 환웅 치우천왕 당시의 중국은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고 ‘황제(黃帝)’라는 치우천왕의 적수는 정착하지 못하고 군대를 이끌고 수시로 옮겨다녔다고 환단고기는 말한다. ‘탁록의 전투’에서는 칼자루가 핏물에 떠다닐 정도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양방에서 모두 평화를 갈구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중국에서는 최초의 나라인 하,은,주 시대가 시작되었고 치

우천황의 후손들도 일부는 전쟁을 피해 멀리 만주지역으로 이주했던 것이다.

중국 최초의 나라는 요임금과 순임금이라는 어진 성군들에 의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만주에서는 단군조선이 시작되고 있었다. 단군왕검은 조상인 치우천왕 시대의 영토였던 산둥반도와 그 북쪽의 하남, 하북, 산서성 일대를 **번한**이라 칭하고, 만주 송화강 유역의 도읍지 **아사달** 지역을 **진한**이라 하고, 남쪽으로 한반도 전체를 **마한**이라 부르며 다스렸다고 한다. ‘**단군삼한**’이 그것이다.

제1대 단군 왕검의 치세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정사 50년(BC 2284년), 홍수가 크게 일어나 백성들이 쉴 수가 없었다. 제께서는 **풍백(風伯=기상학자)**인 **팽우**에게 명하여 물을 다스리게 하고, 높은 산과 큰 강을 평정하여 백성들을 편안케 하였으니 우수주에 그 비석이 있다. 갑술 67년, 태자 부루를 파견하여 **도산(塗山)**에서 **우사공**(중국 치수의 공로자)과 만나게 하였다. 태자는 **오행치수**의 방법을 전하여 주었고, 나라의 경계도 따져서 정했으니, 유주와 영주의 두곳 땅이 우리에게 속하였다. 또 **회대지방(산둥반도)**의 **제후**들을 평정하여 분조를 두고 이를 다스렸는데, **우순(요임금의 뒤를 이은 하나라 왕)**에게 그 일을 감독케 하였다.

평화를 찾아 만주로 이주했지만 다수의 동이족들은 중국대륙에 그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는 9갈래나 되는 동이족들이 사방에 살고 있었음을 ‘사기’라는 역사서가 말해주고 있다. 주로 대륙의 동쪽에 살았던 동이족들이 산둥반도와 그 북쪽 하남, 하북, 산서성에 살았는데, 국경을 정할 때 단군조선의 영토로 확정했다는 유주(幽州)와 영주는 지금의 산서성과 섬서성 일대를 말하는 지명이었다. 유주와 영주란 귀신같은 초능력의 존재들이 산다는 뜻의 지명으로 태백산과 장안성이 있는 섬서성과 그 옆의 산서성을 가리킨다고 한다. 단군 4세 까지만 해도 그 지역은 단군조선의 영토였던 것이 ‘단군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단군조선의 시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다.

신시개천에서부터 18대를 전하여 1565년이 흘러 비로소 단군왕검이 나셨

다. 웅씨(熊氏) 비왕(裨王)으로써 마침내 신시를 대신하여 구역(九域)을 통일하고 관경을 삼한(三韓)으로 나누었으니 이를 단군조선이라 한다....(신시 본기)

신시 배달국에 뒤이어 일어난 단군조선은 그 관경 안의 총 인구가 1억 8천에 이르렀을 정도로 광대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단일체제로서는 다스릴 수 없어서 삼한(三韓)으로 나누어 다스렸던 것이다.

마침내 삼한으로 나라를 나누어 통치하시니, 진한은 스스로 천왕께서 다스리시고 도읍을 아사달에 세우고 나라를 조선이라 하시니... (단군세기)

진한은 역대 단군님들이 직접 다스린 중심국으로서 지금의 송화강 지역이 중심지였고, 마한은 한반도에 있었으며, 변한은 중국대륙의 동쪽-즉 산둥, 하북성이 중심지였다. 그렇다면 단군서 '태백일사'를 쓴 연산군 시대의 학자 이맥이 백두산이 태백일 것이라고 믿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백두산은 진한과 마한의 한 가운데에 있었으며 산을 군생통력(群生通力)의 장소로 삼았다.는 기록도 있는 것으로 보아 역대의 단군들은 한반도의 백두산에 자주 올라 국가적 행사를 거행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태백, 즉 백두산은 환인의 서자 환웅이 홍익인간의 뜻을 가지고 처음 세상에 내려온 그 태백은 아니었던 것이다.

무오 51년 임금(단군왕검)께서 운사인 배달신에게 명하여 혈구(강화도)에 삼랑성을 짓고, 제천단을 마리산에 쌓게 하였으니 지금(고려시대)의 참성단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의 한반도는 단군조선 삼한의 하나인 마한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강화도에 제천단을 만든 것이다. 그러면 왜 하필 강화도에 제천단을 만들었을까?

강화도는 서해 건너 산동반도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산동반도와 그 지역은 배달국의 전성기였던 치우천왕 시대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조상들이 대대로 제사를 지내던 태산이 있고 치우천왕의 무덤도 그곳에 있다. 그러나 한반도 마한의 왕과 귀족들이 먼 육로를 돌거나 서해를 건너서 태산까지 제사드리러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태산을 바라보는

강화도에 또 하나의 제천단을 세웠던 것이다. 산동반도가 중심지였던 **번한**의 역사기록에서는 **번한의 역대 왕들이 산동반도의 태산(泰山)에서 三神께 제사지내던 풍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번한은 태자(단군왕검의 아들)의 명을 받고 나라에 크게 경당을 일으키고 아울러 삼신을 태산(泰山)에서 제사지내도록 했다. 이로부터 삼신을 받드는 옛 풍속은 회(淮-황하, 양자강 사이의 회수유역)와 대(岱:산동반도) 지역에서 크게 행해지게 되었다.

단군조선의 마지막에 대해서 단군세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종실(宗室)의 대해모수는 몰래 수유와 약속하고 옛 서울 백악산을 습격하여 점령하고는 천왕랑이라 칭했다. 수유후 기비를 권하여 변조선 왕으로 삼고....대저 북부여의 일어남이 이에서 시작되니....

단군조선에 이어 부여국을 세운 종실 해모수(解慕漱)는 진시황이 중국의 천하를 통일하자 그 침략의 말발굽이 단군조선을 짓밟기 전에 단군조선의 맥을 끊고 부여국을 세운 것이다. 종실(宗室) 해모수란 해모수 역시 역대 단군의 후손이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부여국에서도 역대의 임금들을 단군이라 칭했던 것이다. 옛 서울이라 한 것은 단군조선이 망하기 얼마 전, 즉 44대 단군 때 서울을 장당경으로 옮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사달과 백악산**이 나라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을 점령했다고 한 것이다.

단군삼한의 후손들이 한반도에 모인 것은 제1대 단군왕검이 강화도에 제천단을 세운지 2천 여년이 흐른 뒤였다. 그러나 한반도에 모인 유민들은 주로 삼한의 왕손이나 귀족이었고 허다한 백성들은 그대로 중국 대륙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대륙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일부 재야 연구자들의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태백산 지역에서 배달국을 세웠고, 14대 치우천왕 때에는 현재의 산동성 지역에서 청구국을 세웠던 9환족이 어찌해서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가까운 송화강 지역에서 단군조선을 개국했을까?

중국의 황제(黃帝)는 동이족의 천왕 치우와의 전쟁에 지친 나머지 손자 전

옥에게 지상세계를 맡기고 하늘로 올라간 후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던 사다리를 끊었다 한다. 더 이상 인간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별도의 거처에서 살았다는 뜻이다. 아마도 그곳이 중국신화에서 말하는 곤류산의 5성 12누각이었을 것이다.

예로부터 군자국(君子國)이라 불렸던 동이족의 중추세력도 전쟁터인 중국 대륙을 떠나 멀리 만주로 이동해 갔을 것이다. 그곳에서 단군왕검은 신시개국의 정신을 이어받아 개천입교(開天立敎), 재세이화(在世理化), 홍익인간(弘益人間)의 평화적 치세에 힘썼던 것이다.



< 2 > 12-환인과 수메르 신화

환단고기의 내용들을 고증함에 있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 환인님의 시대가 중앙 아시아에서 3천여년이나 지속되었다면 어떻게 그곳에서 아무런 고대문명의 유적이 발견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 지구에 파견된 12-멜기세덱들의 임무가 '감시의 천사'였다 는 점에 착안해야 할 것 같다. 지구의 전(前) 문명이었던 아틀란티스와 레 프리아 시대에 아틀란티스가 레프리야를 무력으로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구를 초토화시킨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요주의 행성이 되었고 감시의 대상이 된 것이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에덴동산의 역사가 기원전 4천년 경이었던 것은 창세기의 연대기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그에 비해 중앙아시아에서의 12-환국은 그보다 3천년 가량 앞선 시대였다. 그 시대의 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수메르 신화이고 중동신화인 동시에 12환인에 관한 이야기이고 '유랜시아서'에서 말하는 12-멜기세덱들에 관한 신화인 것이다. 19세기에 발굴된 점토판 썩기문자에 의해 알려진 길가메쉬 이야기, 인간창조 이야기, 홍수에 관한 이야기도 그 중에 속한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은 대홍수와 함께 막을 내린 것이다. 대홍수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우파니쉬팀도 '딜문'이라는 영생의 도시로 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또 수메르의 신화들은 그 신들이 대부분 물의 신이거나 지하수의 신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용궁에 관한 전설이 있는 것도 환인이 12환인 중 한 존재였기 때문일 것이다.

대홍수 이전의 중앙아시아 문명은 농경사회 이상이 못되었던 것으로 그들이 남긴 점토판 문자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한다. 즉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중아시아에서의 3천년 역사는 대홍수와 함께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점토판들이 수메르 신화를 말하고 있고 발굴된 지역이 기독교 창세기에서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겹치기 때문에 커다란 고고학적 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점토판에서 말하는 수메르 신화가 곧 창세기의 원본이라는 것이다.

그런 오해가 발생한 것은 수메르와 창세기 신화가 똑 같이 인간창조와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문명은 각기 대홍수 이전과 이후에 같은 지역에 살았던 다른 문명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메르인종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우파니쉬티는 ‘달문’이라는 영생의 도시로 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점토판은 말하고 있으니까.

히브리 신화서들에 의하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의 시대까지 그들에겐 문자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점토판 문자들이 발굴된 곳은 니느웨라는 고대도시였고 창세기에 의하면 대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세운 도시였다. 그 니느웨 유적지에서 점토판 문자들이 발굴되었다는 것은 대홍수 이전에 두 종족의 교류가 있었고 같은 썩기문자를 사용했다는 예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메르 신화의 점토판들이 니느웨 유적지에서 발굴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점토판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세운 도시 니느웨 유적지에서 발굴되었지만 그것은 히브리의 신화가 아니라 대홍수와 함께 사라진 수메르족의 신화였다는 것이다. 대홍수 이전에는 같은 썩기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니느웨 유적지에서 수메르 이야기가 발굴된 것이다. 수메르 신화에서도 인간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신들도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며, 그러나 창세기의 인간창조 예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인 것이다. 비경전으로 전해지는 히브리 신화서들에 의하면 창세기의 이야기는 보다 자세한 많은 신화서들을 매우 압축해 놓은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언어학자 사무엘 헨리 후크가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점토판들을 해석함으로써 해서 수메르 신화들이 알려졌고, 대홍수 이전의 메소포타미아와 중아시아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인간들의 삶 이라기보다 신들의 삶을 말해주고 있지만, 수로를 만들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일손이 모자라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야기,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길가메쉬라는 왕의 모험담, 모든 신부들은 첫날밤을 길가메쉬와 보내야 한다는 여신들이 신전에서 성행위를 했다는 이야기들에서 당시의 인간들의 삶도 엿볼 수 있다. 아마도 자신들의 우수 유전자를 퍼뜨려서 유능한 인간들을 탄생시키기 위한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신들의 성적 삶이 문란했던 것으로 점토판들이 전하고 있을 것이다.

수메르 신화라고 알려졌지만 아누, 엔키, 인안나....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신들은 12-멜기세덱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떤 점토판에는 그 신들의 어머니가 바다의 여신이었다고 말한다. 자연히 엔키라는 대표적인 신도 지하수의 신이고 그 신전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깊은 지하세계에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딜문'이라고 하는 영생의 도시도 강의 선창가를 통해 들어가며, 그곳엔 새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람을 해치는 동물도 없으며 병든 사람이 없고 농경지나 연못도 필요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바닷속 도시, 즉 용궁과 같은 곳이었을 것이다.

대부분 신화학자들이 수메르 신화가 창세기의 원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이며, 그 문명은 중앙아시아에서 12-환인들에 의해 인도되었고, 대홍수와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다. 12-환인들, 멜기세덱들 중에는 수생동물이거나 수륙양생에서 진화한 고등한 생명체요 우주인들이었을 것이다. 동양인들의 DNA적 조상이 공룡/파충류 생명체였듯이 말이다. 그리고 대홍수 이전의 중앙아시아 문명이 흔적도 남기지 못한 것은 당시의 지구가 감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문명다운 문명을 발전시킬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환단고기의 신시 배달국 시대도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초기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아래에서 알 수 있다.

신시(神市)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산에는 길도 없고 못에는 배도 다니지 않았으나 산과 들에는 초목이 우거지고 짐승들도 평화롭게 서로 어울렸으며....

수메르, 중동신화를 연구한 사무엘 후크는 이렇게 말한다.

수메르의 창조신화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어떤 창조신화에서도 완전한 무(無)에서의 창조개념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¹⁾

또 왕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후, 왕좌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후, 라는 문구들이 자주 발견된다고 한다. 수메르나 중동의 고대 신들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신인 아니라 하늘에서 파견된 멜기세덱들이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멜기세덱이라는 명칭은 우주에서 행정과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이름이지만 때로는 멀리 파견되어 문제 행성들을 컨트롤하는 해결사의 임무도 담당했다고 ‘유랜시아서’라는 뉴에이지 문서에서 알려주고 있다.

1) 범우사 간 ‘중동신화’에서 인용.



< 3 > 민족적 풍습이 증거한다.

환단고기 중의 '태백일사'는 저자 이맥이 고기(古記)들을 총괄적으로 편집한 것이다. 이맥은 자신이 '태백일사'를 펴내게 된 동기를 아래와 같이 말한다.

세(歲)는 갑자년(1324년), 괴산에 유배되어 적소에서 마땅히 근신하니 매우 무료한 터라 집에 간직하여 온 여러 상자들을 취하여 조사해 본즉, 사전(史典)으로 가치가 있는 것과 또 평소애 여러 고로(古老)들에게 들은 것들을 합쳐서 채록하였는데 이를 책으로 만들지는 못했던 바라. 그 뒤 16년(1340년) 경진에 내가 찬수관(撰修官=서고 책임자)으로 뽑혔기 때문에 열심히 내각(內閣)의 비밀서적들을 얻을 수 있어 이를 읽고 앞의 원고(유배지에서 정리했던)에 곁들여 편찬하고 이름하여 '태백일사'라 하였다. 그렇지만 감히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이를 비장하였다. 때문에 이 글은 문밖에 나서지 못했던 글들이다. 일십당 주인이 쓰다.¹⁾

이맥이 실토했듯이, 단군서들은 국가적 금서정책에 묶여서 공개적으로 전해지지 못하고 민가의 학자들에 의해 남모르게 전해졌던 것이다. 그래서 밀기(密記)라고 불린 단군서들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계연수가 '환단고기'로 엮어낸 문서들은 그 출처와 전한 사람들의 신분이 자세히 수록된 가치 있는 문서로써 우리 현대인들의 손에 주어진 것이다. 현대의 역사학자들이 이 환단고기를 공인된 역사서로 살려내지 못한다면, 이는 고려, 조선 조의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와 일본 식민치하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부끄러운 자기선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1) 정신세계사 간 임승국 저 '환단고기'에서 인용.

그러면 환단고기의 내용들이 허구가 아님을 우리의 생활풍습 속에서 찾아 보자. 역사학자들의 말처럼 환단고기가 한 독립투사에 의해 급조된 위작인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보수 대 진보의 대립으로 역사까지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려는 역사학자들도 우리 선조들의 생활 전반에 속속들이 배어있었고 지금도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단군시대의 풍습과 문물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환단고기의 기록들과 우리 민족의 생활풍습과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고증해 보자는 것이다. '신시본기'에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환웅천왕께서 사람의 거처가 이미 완성되었고 만물이 각각 그 자리를 가짐을 보시더니 곧 고시례(高矢禮)로 하여금 먹여 살리는 임무를 담당토록 하시고....

위에 나오는 고시례는 백성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관리였던 것이다. 40대 이상의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것이다. 소풍 가서 점심을 먹을 때 "고시례!!"하며 먼저 음식을 조금 떼서 산에 던지던 행위를 말이다. 음식을 마련해 준 고대의 신 고시례에게 바치던 풍습인 것이다.

밭이나 들, 도읍지를 막론하고 음식을 바쳐 제사올리니 어질고 겸양하는 풍속이 가득했다....(삼한관경본기)

또 집을 짓을 때마다 상량제를 올리며 성주대감께 절하던 풍습도 기억할 것이다. 성주대감이란 신시시대의 건축담당자 성조(成造)를 기리는 명칭인 것이다.

팽우에게 명하여 땅을 개척토록 하고, 성조(成造)에게는 궁실을 짓게 하였으며, 고시(고시례)에게는 농사를 장려하도록 맡기셨고, 신지(神誌)에게 명하여 글자를 만들게 하시고.....(삼성기)

뿐만 아니라 시골집의 담 밑이나 마당 한 귀퉁이에 세워져 있던 업주가리를 기억할 것이다. 뗏집을 묶은 단을 세워놓고 해마다 그곳에 곡식을 진설하거나 절하던 집안의 신성한 장소였다. 이 업주가리의 근원도 신시시대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집안에 땅을 골라 단을 설치하고 흙그릇에 쌀과 곡식을 가득 담아 단 위에

올려놓았다. 이를 부루의 단지라 부르고 업신(業神)으로 삼았으며 또한 완전한 사람이 받는 계명이라 하고 전계(佺戒)라고도 불렀고 업주가리(業主嘉利)라 하였으니 바로 사람과 업이 함께 완전하다는 뜻이다....(단군세기)

우리가 어떤 물건을 귀하게 여길 때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는 말을 쓴다. 신주단지란 부루의 단지에서 나온 말인 것이다. 그러면 농업의 업신(業神)을 완전한 사람의 계명이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의식주를 신들의 베품에 의존했던 삶에서 스스로 책임지는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다. 업주가리는 그런 전환을 기념하는 행위의 장소였던 것이다.

아기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여 삼신(三神)이라 하고 벼 익은 것을 축하하여 업(業)이라 하였다. 산을 군생통력(群生通力)의 장소라 하고 업을 생산작업의 신이라 한다. 때문에 또한 업주가리라고도 한다. 집터에 발원하면 토주대감이라 하고 집에 발원하면 성조대군이라 하니...묘자리 쓸 때, 고기잡이 나갈 때, 진을 칠때, 길을 떠날 때, 모두 각각 제를 지냈으니 제는 반듯이 날짜를 골라 재(齋)를 올려야 복을 이루는 것이다....(단군세기)

지금도 이사를 할 때는 길일(吉日)을 골라 이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삼신할머니가 아이를 점지해 준다는 말도 흔히 들었을 것이다. 또한 터줏대감 성조대군이라는 명칭도 기성세대에게는 귀에 익은 단어들일 것이다. 그 외에도 '시월상달'이니 '3.7일' 같은 단어들이 단군시대부터 쓰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단군 구율이 처음으로 갑자를 써서 10월을 상달(上月)이라 하고 이를 한해의 시작이라 했다.....(단군세기)

삼국사기의 고구려기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들이 있다.

가을 8월에 낙랑군을 침공하여 남녀 2천여 명을 사로잡았다...

봄 2월에 환도성을 보수하고 또 국내성을 쌓았다. 가을 8월 왕이 환도성으로 옮겨왔다....

8월을 가을이라 하고 2월을 봄이라고 한 것은 10월을 상달이라 하여 한해의 첫 번째 달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환단고기의 기록들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고도 남는 것이다.

신시(神市)에 도움을 세우시고 나라를 배달(倍達)이라 하였다. 3.7일을 택하여 천신께 제사지내고 밖의 물건을 꺼리어 근신하며....(삼성기)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도 3.7일, 즉 21일 동안 대문에 금줄을 달아 외부인의 출입을 금했던 것을 한국인이라면 모두 기억할 것이다. 21일은 암탉이 알을 품어 병아리를 탄생시키는 기간이기도 하다.

신시 이래로 하늘에 제사지낼 때마다 나라 안의 사람들이 크게 모여 함께 노래 부르고 큰 덕을(환웅의 덕) 찬양하며 화목을 다졌다....한 쪽은 햇불을 나란히 하고 또 한쪽은 둥글게 모여서 춤을 추며 애환(愛桓)의 노래를 함께 불렀다....(소도경전본훈)

달밤에 부인네들이 모여 서로 손을 잡고 원을 만들며 '강강수월래'를 부르는 풍습은 중국의 동이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영고'라는 동이족의 큰 행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최근 20-30년 전까지도 우리네 생활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었던 위와 같은 풍습들이 신시시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고기의 기록들이 허구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뿐만이 아니다.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내는 국가적 행사가 중국의 유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43세 단군 물리 때의 기록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

도적들이 도성을 에워싸고 급하게 공격해 왔다. 단제께서는 좌우의 궁인과 함께 종묘사직의 신주들을 받들어 모시고(帝與左右宮人奉廟社)배를 타고 피난하여.....(단군세기)

단군시대는 중국의 하,은,주와 같은 시대였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전국 시대보다 훨씬 앞선 시대였던 것이다. 위의 기록이 나오는 43세 단군 물리 때는 단군시대의 말기였기 때문에 공자가 살았던 전국시대와 같은 시대였으니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다. "옛 법도가 중국에서는 없어졌어도 동이의 나라에는 있다 하니 그 말이 맞다." 또 동이 사람 소련과 대련이 부모를 위해 3년상을 치른 것을 칭찬하며 동이의 나라에 가 살고싶다고 했다 한다. 소련과 대련은 부모상을 정성껏 치르는 도의 효시가 된 사람이며 2

세단군(BC 2239년) 때의 사람이었다. 이는 공자보다 1700년이나 앞선 시대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단제(2세 단군)께서는 소련 대련을 불러 다스림의 길을 물었다. 그에 앞서, 소련과 대련은 상(喪)을 잘 치렀으니 사흘 동안은 게을리하지 않고 석달 동안은 느슨하지 않았고, 한 해가 지났을 때까지 슬퍼 애통해 하였으며 삼년 동안 슬픔에 젖어 있었다....소련과 대련은 이렇듯 효로써 알려졌으니 공자도 이를 칭찬하였다. 무릇 부모에게 효도함은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익되게 하는 근본이니, 온 세상에 두루 알려 표준을 삼게 하였다.....(단군세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삼년상을 치르는 유례는 단군시대의 소련, 대련의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정사 2년 예관이 청하여 삼신영고의 제사를 지냈다. 단제께서 친히 행차하시어 경배하시니 첫 번째 절에 세 번 머리를 조아리고, 두 번째 절에 여섯 번, 세 번째 절에 아홉번을 머리숙여 절하시고, 무리와 함께 특별히 열번을 절하시니 이를 3.6의 대례라 한다.....(단군세기)

유교에서 중히 여기는 3.6대례도 신사와 단군시대의 예법이었던 것이다. 조상께 제사 올리는 것 역시 결코 중국의 유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지 않은가?

불상이 처음 들어오매 절을 세워 이를 대웅(大雄)이라 불렀다. 이는 승도들이 옛 것을 세습하는 칭호로서, 본래의 승가의 말은 아니다....(신시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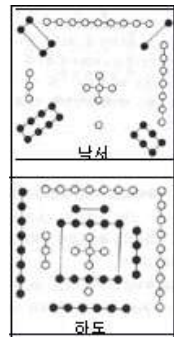
부처님을 모신 건물을 왜 대웅전(大雄殿)이라 부르게 되었는지 그게 항상 이상하게 생각되었는데, 환단고기에 그 답이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 모신 건물을 대웅전이라 부른 것은 옛것을 본따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다.

대시전(大始殿)을 세우도록 명령하셨으니 매우 장려하였다. 돌아가신 환웅천제의 모습을 받들어 모셨는데 그 머리 위에는 광채가 번쩍번쩍하여 마치 큰 해와 같았다. 둥근 빛은 온 우주를 비추며 박달나무 밑 환화(桓花) 위에 앉아계시니....(단군세기)

우리나라의 불상들이 연꽃 위에 앉아있는 모습도 환화(桓花=진달래) 위에 앉아계시는 대시전의 웅상(雄常)에서 본딴 것이며 대웅전(大雄殿)은 웅상을 모시던 대시전(大始殿)이 원형이었던 것이다. 웅상이란 신시시대부터 환웅을 상징하는 명칭이었다. 그러니까 대웅전의 雄자는 桓雄(환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신시시대의 환웅도, 불교의 석가도 큰 인물이기 때문에 雄자를 썼을 것이다.

웃놀이를 만들어 이로써 환역(桓易)을 강연하니 대저 신지, 혁덕이 글로 남긴 것으로 바로 천부(天符)의 유의(遺意)였다.....(삼한관경본기)

천부(天符)의 符는 낙서, 하도처럼 간단한 도형의 역학을 뜻한다. 웃놀이도 단군시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웃놀이로써 환역을 강연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도(河圖)와 낙서(洛書)라는 간단한 도형이 천지의 이치를 숫자로 나타낸 역학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도와 낙서는 중국이 아닌 단군시대에 천하(황하)에서 신귀(神龜), 용마(龍馬)에 의해 얻어진 것이다. 그중 낙서의 도형이 바로 윗판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웃놀이로써 환역을 강연했다고 한 것이다.



환단고기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물이해가 시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말하는 중국 학자들의 고증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이 고구려를 자기네의 속국이었다고 들고 나오기 전이긴 하지만.

이전부터 은나라와 주나라에 이르기까지 동이족의 활동 범위는 실로 포괄적임을 알수 있다. 이는 지금의 산동성 전부와 하북성의 발해연안, 하남성의 서북, 안휘성의 중북부 지역, 호북성의 동쪽, 그리고 요동반도와 조선반도 등 광대한 구역이며 산동반도가 그 중심 지역이다...역법은 사실 동이가 창시자이며 소호 이전에 이미 발명되었었다....²⁾

역학을 비롯한 중국의 고대 문물이 동이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조상들도 동이족이었음을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2) 정신세계사 간 이일봉 저 '실증 환단고기'에서 인용.

동이(東夷)는 은나라 사람들과 동족이며 그 신화 역시 근원이 같다. 태호, 제준, 제곡, 제순, 소호 그리고 설(은나라의 시조)등이 같다고 하는 것은 근래의 사람들이 이미 명확히 증명하는 바다.³⁾

위에 열거된 고대인들은 중국의 삼황오제 때의 제왕들이었는데 그들이 모두 동이족이었다는 말이다. 태호는 '동방의 제왕'으로 알려졌던 복희(伏羲)를 뜻하며 환단고기에서는 5대 환웅 태우의의 아들이었다는 인물이다. 소호에 대해서는 환단고기에서 이렇게 말한다.

소전은 소호와 함께 모두 고시씨의 방계이다.

소호는 중국인들이 고대의 대표적 제왕으로 여기는 황제(黃帝) 현원보다 조금 앞선 시대의 제왕이었고 소전은 황제의 조상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신시대에 먹거리를 담당했던 고시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중국의 학자들이 고증한 것이다.

원화(源花)는 여랑(女郎)을 말하고 남자를 화랑(花郎)이라 하며 또 천왕랑이라고도 하니, 임금의 명령에 의하여 까마귀 깃털이 달린 모자를 하사받았다.....⁴⁾

화랑에 관한 위의 기록은 '삼신오제본기'에 나오는 글이기 때문에 신라시대가 아니라 신라보다 수천년은 더 거슬러 올라가는 신시시대부터 있었던 풍습인 것이다.

....이렇게 된 후 활이 만들어지니 새와 짐승들은 도망치고 그물을 치니 물고기 새우가 숨게 되고, 칼과 창과 병사도 생기게 되었다.....(신시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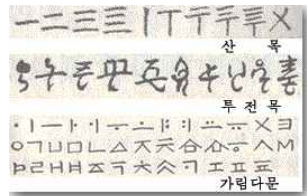
신시시대 초기에는 마치 이스라엘이 하늘로부터 '만나'라는 제조된 곡식과 하늘의 메추라기로 배를 채웠듯이 의식주에 있어서 신들의 혜택을 누렸다고 한다. 한번 심으면 계속 열매를 맺어 다시 심을 필요가 없고 나무의 껍질만 벗기면 그것으로 옷을 해입을 수 있었다는 중국의 설화도 있다. 또한 짐승을 잡아먹을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

3) 上同

4) 이하 모두 정신세계사 간 임승국 저 '환단고기'에서 인용.

다는 기록이 ‘신시본기’에 있다. 그 후 활이 만들어지고, 동이(東夷)의 夷자는 활극자와 큰大가 합쳐서 이루어진 글자다. 중국의 가장 오랜 문서 산해경에서도 활을 숙신(동이)의 나라에서 제일 먼저 사용했다고 말한다.

병신년에 한수사람 왕문이 이두법을 지어 바치니 천왕께서 좋다고 하시며 삼한에 모두 칙서를 내려 시행케 하였다....(삼한관경본기)



이두법(吏讀法), 즉 한자를 간단한 글자로 만들어 사용한 것은 신라시대 이전 단군시대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삼랑 을보록에게 명하여 정음 38자를 만들어 이를 가림토(加臨土) 문자라 하니 그 글은 아래와 같다.

훈민정음이 조선조의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것이라 하나 3세 단군 가락 때(BC 2181년)에 이미 만들어졌던 가림토 문자에 뿌리가 있었던 것이다.

갑오 16년, 주(州)와 현(縣)을 나누어 정하고 직책의 한계를 정하였다. 관리는 권력을 겸하는 일 없고 정치는 법칙을 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니....(13세 단군 흘달)

옛 제도와 문물이 모두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천상의 단군 들께서 얼마나 분통해 하십니까?

옛날엔 백성들이 계곡에 흐터져 살았기 때문에 장사지낼 적당한 땅이 없었다. 위로는 국왕으로부터 모두 다 동굴로 옮겨 천신과 나란히 모시고 이에 제지냈다. 후세로 오면서 평지에 장사지내는 사람도 생겨나고, 돌레에 박달나무나 소나무를 심어 표시하는 풍속도 생겼다. 신시시대에는 능이나 묘를 쓰는 풍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 풍습이 복잡해지면서 번거롭고 사치로운 장례풍습도 생기고, 혹은 등글게 혹은 네모나게 봉분을 만드는 풍습이 생기면서 능을 만드는 제도와 규격도 만들어졌다. 고구려 시대의 능묘방식은 천하의 으뜸이라고 인정되었다....(신시본기)

몇년 전 KBS의 한 다큐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고분 발굴 기록을 보았다. 바로 봉분이 네모난 형태의 무덤을 발견한 것이다. 단군시대의 관경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멀리 탐랑(耽浪=제주도)에까지 미쳤다는 단군세기의 기록이 사실로서 증명된 셈이다.





< 4 > 환단고기와 민족적 정체성

한 때는 한국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도 방송에서 자주 만났고 현재는 세계적인 한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후진국이거나 개발도상국 몇 개의 나라에서 그것도 영상 문화에 중독되어 사는 젊은 이들이라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증산선생의 큰 포부처럼 **평천하 치천하 우주일가**,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선진국의 지식층도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수출품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문화적 고급화의 수출품이 만들어져서 정말 평천하 치천하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에서부터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대륙 동쪽 끝을 의미하는 동북아주의나 서양에서는 무자비한 패권주의자로 알려진 징기스칸을 내세울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한국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떤 정체성의 재확립이 있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알타이족 중에서도 가장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환단고기라는 역사서야말로 이 시대에 주어진 하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알타이족의 초 고대로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우주로부터의 내방객이었던 우리의 조상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환단고기의 ‘삼성기’에서 되풀이해서 말하는 ‘하늘을 대신하여’라는 문구와 감군(監群)이라는 명칭들은 그런 우주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을 대신하여,라는 말은 지구에 파견된 우주의 관리들, 즉 **멜기세덱**들의 사명을 뜻하고 ‘감군(監群)’이란 기독교의 예복서에서 말하는 ‘감시하는 천사들’을 뜻하는 것이다. 환인님을 위시해서 12환인들은 바로 그 멜기세덱

이었고 감시의 천사들이었던 것이다. 당시의 지구는 우주 사회로부터 감시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환인-멜기세덱, 감군-감시하는 천사들은 BC.7-5천년경 카스피해 동쪽의 중앙아시아에서 알타이족의 조상들을 다스렸고, 카스피해 건너 서쪽에서는 BC.4천년경에 에덴동산의 설화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후 BC.원년에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 있었고, 승천했으나 지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인도 북부의 캐시미르 지역에서 혼인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살다가 95세의 나이에 자연사했다고 한다. 미국의 리바이 도울링이라는 사람에게 의해 쓰여진 ‘보병궁성서’라는 새로운 성서에서 말하는 내용이다.

캐시미르와 인도에서 활동했던 부활후의 예수의 행적은 옛 사원의 유적지에서 발굴된 비석에도 남아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사도 도마가 인도에서 선교하던 때에도 자주 나타나 도마를 도왔는데, 사람들은 두 사람이 똑같이 생겨서 누가 예수이고 누가 도마인지 헷갈려 했다는 예기가 비경전 ‘도마행전’에 있다. 즉 두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쌍둥이로 태어났던 것이다. 구세주라는 귀중한 인물을 탄생시킴에 있어서 왜 쌍둥이라는 걸다리를 붙였을까? 동양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부활후의 예수는 예루살렘의 도마를 압바스라는 인도 상인에게 억지로 떠넘기며 인도로 보냈던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도마를 **디두모 도마**라고 부르는데, 디두모는 히브리어로 쌍둥이를 뜻한다고 한다.

히브리 신화서에는 어릴적 예수가 아버지 요셉과 함께 포도밭에 있을 때 집에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와 너무 닮은 아이가 나타나 놀랐다는 예기가 있다. 예수탄생의 스토리를 전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라헬이라는 산파가 전한 예기인데, 요셉이 산파 라헬을 데리고 급히 동굴로 돌아왔을 때 처녀 마리아는 잠들어 있었고 매우 밝은 빛 속에서 태어난 아기는 웃고 있었다고 전한다. 제왕절개술로 쌍둥이 도마를 먼저 탄생시킨 후 예수가 태어났을 것이며 먼저 태어난 아이 도마는 페르샤 궁전에 보내져 소년이 되기까지 키웠던 것 같다. 사도 도마가 써서 남긴 ‘도마행전’이라는 문서에 의하면 그가 어린시절 페르샤의 궁전에서 자랐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사도 도마가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는 이야기는 현재 남부인도의 고대 기독교 유적지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부활후의 예수가 쌍둥이 형제 도마를 떠나면 인도까지 억지로 보낸 목적이 또 하나 있었던 것이다. 인도보다 더 먼 동방의 끄트머리 나라 한반도까지 ‘하늘’의 계획은 뻗어 있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도마가 인도에서 선교했던 시기와 우리나라의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가야/신라의 난생설화들이 발생한 시기가 같기 때문이다.

김수로왕의 부인 허황후가 인도로부터 한반도에 시집온 것은 그 아버지 꿈에 나타난 어떤 신이 딸을 떠나면 동방의 나라에 시집보내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도 도마의 인도선교 이야기 중에는 못된 귀신에게 붙잡혀 고생하는 부잣집 부인과 딸을 신통력으로 해방시켜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해방되었지만 소문 때문에 시집보낼 수 없게 되었고, 동방의 나라로 시집보내라는 꿈의 계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허황후가 생면부지의 떠나면 나라로 시집갈 수밖에 없게 만든 하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다.

옛 가야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애용되는 식물이 있다고 한다. 방아/산초라고도 하는 그 식물의 맛은 인도의 카레맛과 비슷하다고 한다. 옛 설화들이 고대인들의 상상물이 아니라 역사였다는 사실은 머지않아 상식이 될 것이다.



< 5 > 중국 산해경과 환단고기

산해경(山海經)이란 중국의 신화집은 지리서인 동시에 중국 대륙의 산들과 그 지역의 특수한 동물이나 광물, 그리고 식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라고 한다. 식물은 약초가 대부분이며 동물은 그 모양이 괴이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능력을 지녔던 신적인 존재들이었다 한다. 그래서 산해경은 고대에 산을 찾아 제사를 드리던 무속인들에 의해 그려진 그림책이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붙어 있다. 오랫동안 그렇게 그림으로 전해진 고대의 이야기들이 문자를 쓰기 시작한 시대에 문서화 되었고, 서기 원년을 전후한 한(漢)나라 시대에 산해경이라는 이름으로 집대성된 것이 중국 최고(古)의 신화집인 산해경이라고 한다.

중국인들의 역사는 삼황오제 시대부터 시작되지만, 환단고기에 기록된 황인종의 역사는 그 이전 수천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중국의 삼황오제도 환웅의 후예였음을 기록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초고대를 말하고 있는 산해경 속에는 틀림없이 단군신화의 편린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같은 중국 대륙에서 고대문명을 일군 것이 삼황오제와 동이족의 조상들이었으니까.

산해경에서는 광활한 대륙을 바다해(海)자를 써서 나타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경(經)은 경계선이라는 뜻과 같이 쓰였기 때문에 山海經은 산과 바다가 아니라 넓은 땅(海) 중에서도 산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대륙의 기이한 풍물을 기록한 내용이다. 해외동경(海外東經)은 바다 밖이 아니라 넓은 땅-대륙의 동쪽변방 지역을, 해외서경은 서쪽변방 지역을 가리킨 것이다.

신시 시대에 동이족이 세운 국가 배달국을 고대의 중국인들은 속신국이라고 불렀다. 엄숙하고(肅) 신중한(愼) 사람들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해외서경(海外西經)에 있다고 했다. 서쪽 변방(海外)에 있다는 뜻인데, 삼위/태백에서의 신시 배달국을 가리킨 것이다. 그리고 대항북경(大荒北經)에도 속신국이 있다고 했는데 북쪽의 넓고 거친 땅-만주 지방에 있었던 단군조선 역시 속신국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같은 동이족이 세운 국가였기 때문이다. 단군조선 이전, 신시시대 후반에는 산동성 지역으로 도읍을 옮겨 청구국이라 했는데, 중국의 한(漢)족들은 그들을 대인국, 군자국이라 불렀다는 것도 산해경은 말해주고 있다.

대인국(大人國)이 그 북쪽에 있다. 그곳의 주민은 크고, 앉아서 배(船)를 짊고 있다. (어떤 책에는 차구의 북쪽에 있다고 되어 있다.)...¹⁾

군자국(君子國)이 그 북쪽에 있다. 의관을 하고 검을 차며, 짐승을 먹는다. 두 마리의 범을 사육하므로 그 범이 곁에 있다. 그곳의 주민은 견양을 좋아하며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

청구국(靑丘國)이 그 북쪽에 있다.(그곳의 주민은 오곡을 먹고 비단옷을 입고 있다.) 그곳의 여우는 발이 넷에 꼬리가 아홉이다.('급군죽서'에 백저자가 동해에 여행하다가 왕수에서 여우를 잡았는데 꼬리가 아홉이었다,고 했다. 이 여우와 같은 종류이다.).....



옆의 그림은 위의 문구와 함께 산해경에 실린 여우의 그림이라고 한다. 꼬리만 아홉인 것이 아니라 머리도 아홉이다. 이는 고대 신들의 유전공학적 산물임에 틀림없다. 괄호 안의 글들은 후세에 붙여진 해설의 내용이다. 해설을 빼고 나면 대인국, 군자국, 청구국에 대한 묘사가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자가 없던 시대에 그림만으로 전해진 것을 문자로 해석해 놓았기 때문이다. 대인국은 앉아서 배(船)를 짊고 있다고 한 반면 군자국은 의관을 하고 검을 차며,라고 했다. 나무를 깎아 배를 만드는 것에 비해 의관을 하고 검을 찬다는 것은 복식이 발달하고 금속도 다룰줄 알

1) 이하 모두 육문사 간 박일봉 저 '산해경'에서 인용.

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산해경의 해외동경에 묘사된 대인국, 군자국, 청구국은 중국의 하,은,주 시대 이전에 중국 대륙의 동쪽 변방(해외동경)에 있었던 나라들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러면 환단고기에서는 청구국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알아보자.

배달 환웅은 천하를 평정하여 차지한 분의 이름이다. 그 도읍한 곳을 신시(神市)라 한다. 뒤에 청구국으로 옮겨 18세 1565년 동안 다스렸다.....(삼성기)

....14세(歲)는 자오지환웅인데 세상에서는 치우천왕이라 하며, 청구국으로 도읍을 옮겨서 재위 109년 151세까지 사셨다....(삼성기)²⁾

환단고기의 청구국을 중국의 산해경에서도 말하고 있으며 군자국, 대인국이라고도 불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다음은 중국의 산해경과 우리나라의 환단고기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웅상(雄常)의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자. 앞에서 언급한 속신국의 기록에 나온다.

속신국(肅愼國)이 백민의 북쪽에 있다. 나무가 있으며 이름하여 웅상(雄常)이라 한다. 먼저 들어와 제위(帝位)에 대신 서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나무에서 취한다.(제위식을 갖는다.).....(해외서경)

큰 나무를 모시어 환웅의 신상이라 하고 이에 경배한다. 신령스런 나무는 이를 웅상(雄常)이라 한다. 상(常)은 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환단고기)

해외서경이란 중국대륙의 서쪽 변방이라는 뜻이고, 속신국에 대한 언급이 대항북경에도 나온다. 중국대륙의 북쪽 변방에도 속신국이 있다는 말이다. 대항(大荒)가운데 산이 있는데, 이름하여 불함이라 한다. 속신씨국(肅愼氏國)이 있다...(대항북경)

'해외서경'에서 말하는 속신국은 환웅천왕이 흑수-태백(태백산)지역에서 세웠던 배달국을 말하고 '해외북경'에서 말하는 속신국은 만주 송화강 유역에 있었던 단군조선을 가리키는 것이다.

2) 이하 모두 정신세계사 간 임승국 역편저 '환단고기'에서 인용.

웅상(雄常)에 관한 환단고기의 기록은 아래와 같이 이어진다. 신단수(神檀樹)아래서 신시를 열고 나라를 다스렸다는 신화의 원형이 무엇이였는가를 알 수 있다.

많은 박달나무를 돌려 심은 후 가장 큰 나무를 골라 환웅의 상으로 모시고 여기에 제사지내며 웅상(雄常)이라 이름했다....(단군세기)
 이때부터 소도(蘇塗)가 세워지는 곳마다 신의 형상인 웅상(雄常)을 보게 되었다....(마한세가 상)

중국의 산해경에서 속신국을 묘사한 '웅상'과 단군세기의 '웅상'은 그 한자도 똑 같이 雄常이다. 소도(蘇塗)란 웅상의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환웅께 제사지내는 특별한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초고대문서인 산해경에서 우리의 환단고기와 일치되는 내용(웅상)들이 발견되는데 우리의 역사학자들은 아직도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주장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지 않은가? 다음은 산해경의 최후반부에 실린 내용이다. 산해경이라는 문서가 집대성된 한(漢)나라 시대에 첨부된 내용일 것이다. 동이(東夷)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니 말이다.

東海之內，北海之隅，有國，名曰朝鮮。天壽，其人水居。畏人愛之--동해의 안, 북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다. 이름하여 조선이다. 천독. 수상생활을 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이 한다. [천독은 천축국을 말하며, 그 나라에서는 도덕을 중시하고 문서와 금은 화폐가 있다. 석가가 탄생한 나라다. 조선은 현재의 낙랑이다.]

큰 괄호 속의 글은 산해경에 주를 단 진(晉)나라 사람 곽박의 말이다. 그러면 왜 조선과 함께 천독(인도)이란 나라 이름을 거론했으며 그들이 물 위에서 산다고(수상생활) 했나 하는 것이다. 조선과 인도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생각 끝에 필자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위에서 말한 천독국이란 곧 캐시미르를 말한 것이다. 캐시미르는 인도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면서 석가의 탄생지인 네팔에 가까운 지역이다. 그리고 캐시미르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들기만 할 뿐 빠져나가지를 못 해서 습지가 많아 도시가 마치 베니스처럼 수상도시를 이루고 사는 지역이라 한다.

그러면 조선과 캐시미르와는 또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캐시미르는 바로 천산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 만나는 파미르고원 동쪽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과 캐시미르를 연관시킨 것은 조선의 선조 9 환족이 천해의 동쪽 파나류산 밑에서 12환국을 세웠다는 동이족의 신화를 중국의 고대인들이 알았다는 증거다. 또한 그들의 조상이 동이족이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한(漢)족은 대홍수 이후에 태어난 종족이라는 것은 진흙으로 인간을 빚었다는 신화로 말해주고 있다.

신라의 중 혜초가 써서 남긴 '왕오천축국전'도 혜초가 불교 탄생지인 인도를 여행한 후 캐시미르와 파키스탄을 거쳐 파미르고원까지 갔다 온 여행기록이라 한다. 혜초는 무엇 때문에 인도를 지나 캐시미르를 거쳐 파미르고원까지 갔을까? 그곳이 알타이족의 산실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천해의 동쪽 파나류산은 파미르고원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면 다시 산해경의 기록을 보자.

東海之內，北海之隅，有國，名曰朝鮮。天壽，其人水居。畏人愛之--동해의 안, 북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다. 이름하여 조선이다. 천독. 수상생활을 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이 한다. [천독은 천축국을 말하며, 그 나라에서는 도덕을 중시하고 문서와 금은 화폐가 있다. 석가가 탄생한 나라다. 조선은 현재의 낙랑이다.]

동해의 안, 북해의 모퉁이를 가지고 바이칼호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산해경 속의 海는 바다가 아니라 거대한 땅의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해내경(海內經), 혹은 해외경(海外經)이라는 말들은 중국대륙의 안쪽, 혹은 바깥쪽이란 뜻이다. 따라서 동해의 안, 북해의 모퉁이란 대륙의 동북방 안쪽에 위치했다는 뜻이며, 송화강 유역의 단군조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산해경의 말미에 첨가된 위의 문구는 단군조선의 위치와 성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다.

환단고기의 기록 중에 한 가지 의문은 있다. 단군세기에 의하면 수밀이국과 우루국이 단군조선 가까이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단군조선이 자리잡은 곳은 현재의 북한 주 지방이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수밀이국과 우루국이 있었던 말인가?



12환국이 카스피해 옆의 중앙아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수밀이국과 우루국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를 가리킴이 맞는다. 동서가 2만리 남북이 5만리란 중앙아시아 남쪽의 메소포타미아까지를 포함시킨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추측해 보았다. 환웅천왕이 태백 지역에 신시를 열 때 무리 3천을 이끌고 시작했다고 했다. 그들은 9환 64족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는 피부가 흰 백민(白民)족, 눈이 들어간 심목(深目)인도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산해경에서도 중국대륙의 서쪽에, 혹은 북쪽에 백민국(白民國), 혹은 심목국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들 이색 종족 중에 수밀이, 우루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함께 동쪽으로 이주한 후 자기네만의 나라를 세웠을 것이다. 수밀이 혹은 우루국이라고 말이다. 잉글랜드 사람들이 신대륙에 이주해서 뉴잉글랜드라는 도시를 세운 것과 같은 현상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일부가 더 동진해서 일본 북해도의 아이누족이 되었을 것이다.



옆의 그림들은 산해경에 실린 이상하게 생긴 복합생명체들이다. 소개된 그림들 외에도 개와 소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 포유동물과 물고기, 혹은 포유동물과 조류가 한 몸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신이라는 존재들도 몸둥이는 동물이고 머리가 사람이며, 몸둥이는 사람인데 머리가 동물인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도 모두 비정상적으로 생긴 인간들 뿐이다. 위와 같이 특별한 존재들이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그림으로 그려져서 후세에 전해졌을 것이다. 평범한 이야기들은 신화나 역사의 주제가 될 수 없다. 산해경은 이처럼 초-고대의 이야기들을 수록한 고문서이고 거기에 조선과 속신국에 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은 신시시대와 단군시대가 그만큼 고대로 거슬러 올라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산해경의 그림들을 보며 필자는 현대의 유전자 실험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신화의 실상을 몰랐을 때는 신화의 이야기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렸었다. 그러나 우주인들이 다시 지구를 방문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신화의 주인공들이 누구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위의 이상한 생명체들은 소위 배아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조작하는 유전자 실험의 부산물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미안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교보문고로 링크됩니다. 검색창에 책명을 입력하면 즉시구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